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에 관한 연구

김진섭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A Study on the Accounting Conservatism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Corporate

Jin-Seop, Kim

School of Business,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quality)을 회계보수주의(accounting conservatism)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2,993개의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사회책임투자와 회계보수주의는 양(+)의 관련성을 나타냄에 따라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대체로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양질의 회계이익을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책임투자(SRI)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Corporate from the vantage point of Accounting Conservatism. This study used 2,993 sample data from 2011 to 2016. In short, the result of this study's is as followed.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have a positive relevance with Accounting Conservatism. Therefore, this study can support that the firm has a high level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will have the better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according to this study. This study contributes as follow. This study verified the Accounting Earnings's Quality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Corporate from a Accounting Conservatism vantage point and extended precedent study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We hope that this study can be helped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Keywords :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Accounting Conservatism,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1. 서론

사회책임투자(SRI)는 도덕적이고 투명한 기업, 친환경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비도덕적이고 환

경과피를 일삼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아 자본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사회책임투자(SRI)의 영어 머리글자를 딴 SRI펀드들이 이미 선진 자본시장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SRI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Jin-Seop Kim(Pusan National Univ.)

Tel: +82-10-4401-7433 email: kjinsep@pnu.ac.kr

Received September 3, 2018

Revised(1st October 8, 2018, 2nd November 12, 2018, 3rd November 19, 2018, 4th January 3, 2019)

Accepted January 4, 2019

Published January 31, 2019

드들이 출시돼 운용 때 철저히 사회책임을 따지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도 사회책임투자(SRI)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사회책임투자(SRI) 펀드의 투자성과 혹은 이들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성과 혹은 해당 기업의 펀드 투자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회계이익이라고 볼 때, 이들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 역시 해당 기업의 성과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 검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에서 제시한 회계이익의 질 측정지 중 하나인 회계보수주의의 활용하여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책임투자(SRI) 수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Corporate Governance Service)에서 평가·공표하는 ESG 평가를 활용하며, 회계보수주의는 [2]에서 제시한 보수주의 측정방법을 원용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시한다. 제2장 선행연구 및 가설검증에서는 사회책임투자(SRI) 및 회계보수주의 관련 선행연구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 연구설계에서는 표본선정 과정 및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제4장 실증분석에서는 연구가설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를 간략히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 등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선행연구

2.1.1 사회책임투자(SRI)

사회책임투자(SRI)의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이와 관련한 이슈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국외연구가 먼저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회책임투자(SRI)의 개념 및 인식이 국내에 도입되고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도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초기 연구는 대체로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투자성과와 관련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3]에서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이익의 질을 보고하였다.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재무보

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재무정보 중 회계이익의 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책임투자(SRI)와 재무보고 관련 국내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 및 사회적 책임 기업(CSR)과 재무보고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는 동반성장 기업일수록 본연의 영업활동에 충실함을 부동산보유정책을 통해 보고하였다. [5]는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동반성장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6]은 동반성장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활용하여 검증하여, 동반성장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7]은 CSR 중 사회지수와 재무적 발생액 간의 음(-)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8]은 사회적 책임활동이 경영성과의 지속성을 더 높임을 보고하였다. [9]는 사회적 책임(CSR)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함을 제시하였다. [10]은 금융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은 회계정보의 질을 높임을 보고하였다. [11]은 사회적 책임(CSR)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발생액 및 실제 이익조정 수준이 모두 낮음을 보고하였다. [12]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방탄력적인 원가행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13]은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성과가 높은 기업의 이익의 질 및 이익지속성 계수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음을 보고하였다. [14]는 CSR활동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15]는 사회적 책임(CSR)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업위험 측면에 있어서 유리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책임(CSR)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산출·보고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1.2 회계보수주의

회계보수주의(conservatism in Accounting)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3조 일반원칙 6항은 “회계처리방법에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있을 시 재무상태를 건실하게 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16]은 “악재(bad news)에 의한 손실을 호재(good

news)에 의한 이득보다 더 빠르게 인식하는 비대칭적 적시성”으로, [17]은 “이익(profit)의 인식을 손실(loss)의 인식보다 더 엄격한 검증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는 회계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18]). [2]는 이익을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회계처리할 경우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19]는 이익과 자산의 과대계상을 억제시키는 회계보수주의는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회계보수주의 관련 많은 국내연구([5,20-23])가 보고되었다.

2.2 가설설정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초창기 국내 연구는 주로 사회책임투자펀드(SRI fund)의 투자성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재무정보에 관한 연구는 몇몇 진행되었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대체로 사회적 책임(CSR)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산출·보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 보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업윤리 측면에서, 기업경영에 있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향을 나타내거나 강조하는 기업일수록 사회책임투자(SRI) 수준이 높으며, 이와 같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윤리성에 따라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책임투자(SRI)의 유인 중 하나가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명성 유지 및 강화인데 사회책임투자(SRI) 기업들이 이러한 목적에 반해 신뢰성 낮은 회계정보를 보고함으로써 그들의 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셋째, ([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효익과 연계됨을 인지하기 때문으로,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일수록 궁극적으로는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가 기업의 효익과 연계됨을 인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엔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덕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사회책임투자(SRI)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연출이론(dramaturgical Theory)에 의하면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윤리경영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을 오도하는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에 힘쓰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이익조정을 통해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기업이 비용의 수반을 감수하고도 실행하고자 하는 사회책임투자(SRI) 활동이 실제 기업의 신뢰성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기회주의적 인상관리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지 불분명하다[11]. 즉, 기업의 외면 윤리와 내면 윤리가 일치한다면 사회책임투자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이 외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외면 윤리가 높음을 추구하는 대신 그에 반해 기업 내부적으로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추구한다면 사회책임투자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사회책임투자(SRI)와 회계보수주의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표본

본 연구는 연구표본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사회책임투자(SRI) 평가 ESG등급을 공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무자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정보시스템(TS-2000)에서 수집하였으며, 사회책임투자(SRI) 측정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매년 공시하는 ESG 평가정보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총 3,541개 표본에서 결측치 254개 제거 후 3,287개에서 평균±3(표준편차)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치 357개 표본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연구표본 수는 2,930개이다.

3.2 연구모형

3.2.1 가설검증 연구모형

1) 엔론이 2001년 최악의 회계부정으로 몰락하기 전 2000년 엔론은 사회책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CONS}_t \\ &= \alpha_1 + \beta_1(\text{ESG})_t + \beta_2\text{SIZE}_t + \beta_3\text{LEV}_t + \beta_4\text{CFO}_t \\ &+ \beta_5\text{GRW}_t + \beta_6\text{Loss}_t + \beta_7\text{OWN}_t + \beta_8\text{FOR}_t \\ &+ \beta_9\text{Big} + \beta_n\sum\text{IND} + \beta_m\sum\text{YEAR} \end{aligned}$$

앞서 가설설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책임투자(SRI)와 회계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은 그 방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 연구모형에서 사회책임투자(SRI)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β_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다면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된다.

3.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 회계보수주의(CONS)

본 연구에서는 [1]의 음(-)의 비영업발생액을 보수주의 측정치로 활용한다.

$$\text{비영업발생액}_t = (-1) * (\text{TAt} - \text{OAt}) / \text{At}^2$$

$$\begin{aligned} \text{TAt} &= \text{t년도 감가상각비 차감전 총발생액} \\ &= \text{당기순이익} + \text{감가상각비} - \text{영업현금흐름} \\ \text{OAt} &= \text{t년도 영업발생액} \\ &= (\text{매출채권증가분} + \text{재고자산증가분} + \text{선급비용증가분}) \\ &\quad - (\text{매입채무증가분} + \text{미지급법인세증가분}) \\ \text{At} &= \text{t년도 총자산} \end{aligned}$$

비영업발생액은 대손상각비, 평가차손익, 자산처분손익, 감액손실, 기타비용의 발생액과 자본화 및 수익의 이연 등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들은 경영자의 제량에 의해 그 크기 및 인식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비영업발생액이 음(-)의 값을 가질수록 회계이익은 보수적으로 산출된다.

(2) 독립변수 : 사회책임투자(SRI)

사회책임투자(SRI)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정보를 활용하여 환경투자 수준의 환경(E), 사회투자 수준의 사회(S), 지배구조투자 수준의 기업지배구조(G),

그리고 위 세 가지 지수를 통합한 ESG통합평가(ESG)로 구분된다. 이들 변수들 중 ESG통합평가(ESG), 환경(E), 사회(S) 측정치는 평가등급이 A+ 시 3, A 시 2, B+ 시 1, 그리고 B 이하 시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s)이다. 그리고 지배구조(G)는 A+ 시 5, A 시 4, B+시 3, B 시 2, C 시 1, 그리고 D 및 E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25].

(3) 통제변수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채비율(LEV)은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로 측정하였다[26]. 영업현금흐름(CFO)은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으로 측정하였다. 성장률(GRW)은 당기 총자산에서 전기 총자산을 차감한 값을 전기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전기손실여부(Loss)는 전기 손실보고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27]. 대주주지분율(OWN)은 보통주 발행 총주식수를 대주주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고, 외국인지분율(FOR)은 보통주 발행 총주식수를 외국인투자자 지분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28]. 감사인규모(Big4)는 감사법인이 삼일PwC, 삼정KPMG, Deloitte안진, 그리고 EY한영 중 하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29]. 그 외 연구표본의 산업별,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산업더미(IND)와 연도더미(YEAR)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4. 실증분석

4.1 기술통계량

다음 Table 1.은 기술통계량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표본의 종속변수인 보수주의 측정치(CONS)는 약 -0.384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환경(E)의 평균값은 약 1.280, 사회(S)의 평균값은 약 1.216, 지배구조(G)의 평균값은 약 3.204, 그리고 ESG통합등급(ESG)의 평균값은 약 1.197로 각각 나타났다. 표본기업의 부채비율(LEV)은 약 45.8%이며, 전기손실기업(Loss) 비율은 약 17.0%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OWN)은 약 44.2%, 그리고 외국인지분율(FOR)은 약 8.6%로 나타났다. 또한 약 72.9%의 기업들이 BIG4 회계법인에서 감사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는 결과해석의 편의를 위해 비영업발생액에 -1을 곱하여 비영업발생액((-1)*(TA_t-OA_t))과 보수주의가 양(+)의 관계를 갖도록 하고 이를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였다[19].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Mean	Median	Std. Deviation	MIN	MAX
CONS	-3.84	-.202	.805	-2.999	.839
E	1.280	1.000	.555	1.000	3.000
S	1.216	1.000	.533	1.000	3.000
G	3.204	3.000	.458	3.000	5.000
ESG	1.197	1.000	.495	1.000	3.000
SIZE	26.85	26.65	1.441	23.076	31.54
LEV	.458	.466	.200	.001	.934
CFO	.044	.043	.073	-.198	.304
GRW	.060	.040	.141	-.477	.633
Loss	.170	.000	.376	.000	1.000
OWN	.442	.445	.162	.083	.996
FOR	.086	.037	.109	.000	.516
BIG4	.729	1.000	.444	.000	1.000

4.2 상관관계 분석

다음 Table 2.는 가설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결과로, 다른 실험변수 또는 통제변수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이변량 상관계수를 나타낸다.³⁾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S), 그리고 ESG통합등급(ESG)은 (환경(E)을 제외하고) 회계보수주의(CONS)와 1%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회계보수주의(CONS)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이므로 그 해석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사회책임투자(SRI)와 회계보수주의(CONS)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Table 2. Pearson Correlation

	CONS	E	S	G
E	.143**			
	.000			
S	.138**	.640**		
	.000	.000		
G	.187**	.484**	.557**	
	.000	.000	.000	.661**
ESG	.160**	.735**	.871**	.000
	.000	0.000	0.000	

Footnote) ** and * is significant level at the 1% and 5% respectively (two-tailed).

4.3 다중회귀분석

다음 Table 3.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회책임투자(SRI) 변수

(E, S, G, ESG)는 회계보수주의(CONS)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둘째, 사회책임투자(SRI) 변수(E, S, G, ESG) 중 지배구조(G)가 회계보수주의(CONS)와의 관련성에서 가장 높은 계수값(0.295)과 t 값(7.029)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SRI)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회계보수주의 수준(CONS)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책임투자(SRI)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계이익의 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사회책임투자(SRI) 중 지배구조(G)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기업의 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높은 수준의 회계이익의 질을 갖추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CONS		
	coef.	t	p
E	.116	3.279	.001
SIZE	-.050	-3.007	.003
LEV	.349	3.580	.000
CFO	.772	3.366	.001
GRW	.758	5.977	.000
Loss	-.048	-.967	.334
OWN	-.300	-2.810	.005
FOR	1.348	7.453	.000
BIG4	.172	4.349	.000
IND, YEAR	Included		
F	23.075**		
adjusted R ²	.217		
	CONS		
	coef.	t	p
S	.114	3.238	.001
SIZE	-.044	-2.765	.006
LEV	.350	3.594	.000
CFO	.710	3.076	.002
GRW	.755	5.954	.000
Loss	-.049	-1.004	.316
OWN	-.330	-3.099	.002
FOR	1.325	7.295	.000
BIG4	.167	4.225	.000
IND, YEAR	Included		
F	23.063**		
adjusted R ²	.217		
	CONS		
	coef.	t	p
G	.295	7.029	.000
SIZE	-.073	-4.539	.000
LEV	.384	3.979	.000
CFO	.699	3.071	.002
GRW	.771	6.129	.000

3) 지면 상의 제약으로 인해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결과만을 제시한다.

Loss	-.049	-.998	.318
OWN	-.247	-2.332	.020
FOR	1.330	7.439	.000
BIG4	.166	4.250	.000
IND, YEAR	Included		
F	24.918**		
adjusted R ²	.231		
	CONS		
	coef.	t	p
ESG	.174	4.481	.000
SIZE	-.056	-3.428	.001
LEV	.352	3.618	.000
CFO	.732	3.194	.001
GRW	.751	5.931	.000
Loss	-.055	-1.124	.261
OWN	-.310	-2.916	.004
FOR	1.301	7.184	.000
BIG4	.171	4.342	.000
IND, YEAR	Included		
F	23.520**		
adjusted R ²	.220		

Max VIF : 2.415

5. 결론

최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그간 주로 재무보고정보를 투자지표로 활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책임투자(SRI)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사회적책임투자(SRI) 관심을 갖거나 그 수준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⁴⁾ 아울러 사회적책임투자(SRI) 대한 학계의 관심도 증대되어 2010년 이후부터 차츰 사회적책임투자(SRI) 관련 연구가 보고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회적책임투자(SRI) 관련 연구는 주로 사회적책임투자펀드(SRIfund) 혹은 사회적책임투자(SRI) 기업의 경영성과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사회적책임투자(SRI)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사회적책임투자(SRI)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회계보수주의 수준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책임투자(SRI)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계이익의 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책임투자(SRI) 개념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2001년 한국 최초의 사회적책임투자 성격의 '에코펀드'가 출시되고, 이후 2003년 펀드의 운용에서부터 철저하게 사회적 책임을 따지는 본격적인 SRI펀드인 '사회책임투자펀드(SRI-MMF)'가 공동발매되면서부터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책임투자(SRI)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한 첫 연구이자, 사회적책임투자(SRI) 관련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이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까지 관심을 갖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책임투자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회계이익의 질을 갖추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기업의 사회적책임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정부당국 및 우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회계이익의 질 대리변수로 회계보수주의를 활용함에 있어 하나의 측정방법만을 사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복수의 사회적책임투자(SRI) 측정치를 검증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측정치 상의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M. C. Kim, K. Choi, "A study on the concept of quality of Earnings," *The Accounting Review*, Vol. 8, No. 1, pp.221-249, 1999.
- [2] D. Givoly, C. Hayn, "The Changing Time-series Properties of Earnings, cash Flows and Accruals: Has financial Reporting become more Conservativ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9, pp.287-320, June, 2000.
DOI: [https://dx.doi.org/10.1016/S0165-4101\(00\)00024-0](https://dx.doi.org/10.1016/S0165-4101(00)00024-0)
- [3] Y. R. Ryu, S. H. Ji, G. R. Lee,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Book-Tax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2, pp.183-190, 2018.
- [4] S. J. Kwon, C. H. Lee,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Firm's Win-Win Growth - On Focusing Real Estate Policy -," *Tax Accounting Research*, Vol. 55, pp.135-155, 2018.
- [5] Y. R. Ryu, S. H. Ji,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Win-Win Growth,"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 31, pp.1419-1442, 2018.
- [6] Y. R. Ryu, S. H. Ji, "A Study on the Earnings Management of Win-Win Growth Corporate : Utilizing Book-Tax Difference Information," *Tax Accounting Research*, Vol. 57, pp.75-95, 2018.
- [7] Y. S. Kim, Y. B. Huh, S. S. Koh, "The Study on the Association of Corporate Sustainability with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Information Research*, Vol. 28, No. 3, pp.33-57, 2010.
- [8] T. W. Kim, J. W. Kim, "Differentiative Market Response of Management Performance based on the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Tax Accounting Research*, Vol. 55, pp.95-114, 2018.
- [9] E. S. Ki,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Tax Avoidance and the Market Response to the Tax Avoidance,”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Vol. 29, No. 2, pp.107-136, 2012.
- [10] H. S. Kwon, J. W. Park,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Focused on Financial Industry,” *Tax Accounting Research*, Vol. 50, pp.193-211, 2016.
- [11] H. J. Lim, J. S. Choi,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arnings Management: Does the External Business Ethics Portray Internal Ethics?,” *The Accounting Review*, Vol. 22, No. 5, pp.257-309, 2013.
- [12] S. C. Lee, S. Y. Kim,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Cost Behavior,” *Tax Accounting Research*, Vol. 44, pp.209-226, 2015.
- [13] M. K. Cho,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Earnings Quality,” *Tax Accounting Research*, Vol. 41, pp.213-231, 2014.
- [14] J. M. Lee, Y. Kim, “Th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Firm Value,” *Tax Accounting Research*, Vol. 35, pp.27-55, 2013.
- [15] S. B. Choi, “Exploring the Relevance of Corporate Risk in the Ligh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ax Accounting Research*, Vol. 50, pp.227-249, 2016.
- [16] S. Basu,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4, No. 1, pp.3-37, 1997.
DOI : [https://dx.doi.org/10.1016/S0165-4101\(97\)00014-1](https://dx.doi.org/10.1016/S0165-4101(97)00014-1)
- [17] R. L. Watts,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ccounting Horizon*, Vol. 17, No. 3, pp.207-221, 2003.
- [18] K. B. Lee, S. H. Ji, Y. R. Ryu, “The Relevance between Firm’s Governance and Conservatism in Accounting : According to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Information Research*, Vol. 30, No. 3, pp.153-182, 2012.
- [19] H. D. Choi, J. W. Woon,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Conservative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Vol. 31, No. 43, pp.145-174, 2006.
- [20] J. S. Kim,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Firm’s Governance and Conservatism in Accounting,” *Tax Accounting Research*, Vol. 45, pp.257-279, 2015.
- [21] K. B. Lee, S. H. Ji, Y. R. Ryu,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Conservatism of Accounting and Book-Tax Differences on the Earnings Persistenc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4, No. 1, pp.587-605, 2011.
- [22] K. B. Lee, Y. R. Ryu, S. H. Ji, “The effect of the Investor Relation on Conservatism in Accounting,”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Vol. 44, pp.109-134, 2012.
DOI : <https://dx.doi.org/10.21073/kiar.2012.44.006>
- [23] S. B. Choi, “Tax Avoidance and Account Benefit—The Influence of Taxable Income Differences to Conservatism,” *Tax Accounting Research*, Vol. 49, pp.1-36, 2016.
- [24] J. Jones,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9, No. 2, pp.193-228, 1995.
DOI : <https://dx.doi.org/10.2307/2491047>
- [25] H. R. Lee, J. S. Kim,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5, pp.543-548, 2017.
- [26] J. S. Kim, “The Relevance between Investor Relation and 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1, pp.637-643, 2017.
- [27] S. H. Ji, “The Effect of the Investor Relation on Real Earnings Management - According to Firm’s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 *Tax Accounting Research*, Vol. 55, pp.29-52, 2018.
- [28] J. S. Kim, “Analysis of Vulnerable Cooperation in Internal Control System on Characteristics and Earning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0, No. 6, pp.1353-1360, 2009.
DOI : <https://dx.doi.org/10.5762/KAIS.2009.10.6.1353>
- [29] Y. R. Ryu, S. H. Ji, “The Market Responses to Investments Horizons of Foreign Investor,” *Tax Accounting Research*, Vol. 55, pp.143-160, 2018.

김진섭(Jin-Sep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학석사)
- 1997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 1998년 3월 ~ 2006년 2월 : 밀양대학교 회계정보학과 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재무회계, 세무회계